('07.6.28(목), 국가균형발전위원회)

「학교 및 복지 공동체」 복원 및 활성화 방안

학교공동체,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('05.11.24 지시)

○ 도시와 농촌의 학교공동체를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 연구(학교가 하나의 지역사회 거점이 되는 방안 등)

○ 소도시나 농촌에서 복지·의료건강공동체를 만드는 방안 연구(개인의 건강상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 등)

Ⅰ. 검토배경

□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 잦은 인구이동과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하여, 우리의 오랜 전통인 지역공동체 의식과 문화가 와해되는 사회적 문제 발생

○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시민의식의 성숙은 평생학습, 지역학습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

※ OECD는 지역사회 학습공동체의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, 영국, 일본, 호주,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은 평생학습도시와 학습축제 등을 통해 공동체 형성을 촉진

○ 세계화로 대표되는 경제여건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, 저출산·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복지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

□ '살기좋은 지역'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학교, 의료건강 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의 복원 및 활성화가 매우 중요

Ⅱ. 추진경과

□ 학교·복지 공동체 관련 전문가 간담회('06.3.8, 3.17)

□ 제16회 국정과제조정회의 「살기좋은 국토공간 만들기」 보고에서 5대 정책 분야에 지역공동체를 포함('06.3.28)

('07.6.28(목), 국가균형발전위원회)

□ 학교·복지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에 대한 단기용역 추진('06.4)

□ 균형위 출범 3주년 심포지움에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발표('06.5.2)

□ 공동체 관련 민간 NGO 활동 현황 조사('06.11)

□ 학교·복지 공동체 관련부처 정책 검토('06.12)

□ 학교·복지 공동체 활성화방안 보고서 작성('07.4.1)

Ⅲ. 비전과 과제

1. 학교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

1) 목표 : 학교시설 활용과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동체 형성 및 복원으로 살기좋은 지역사회 구현

2) 3대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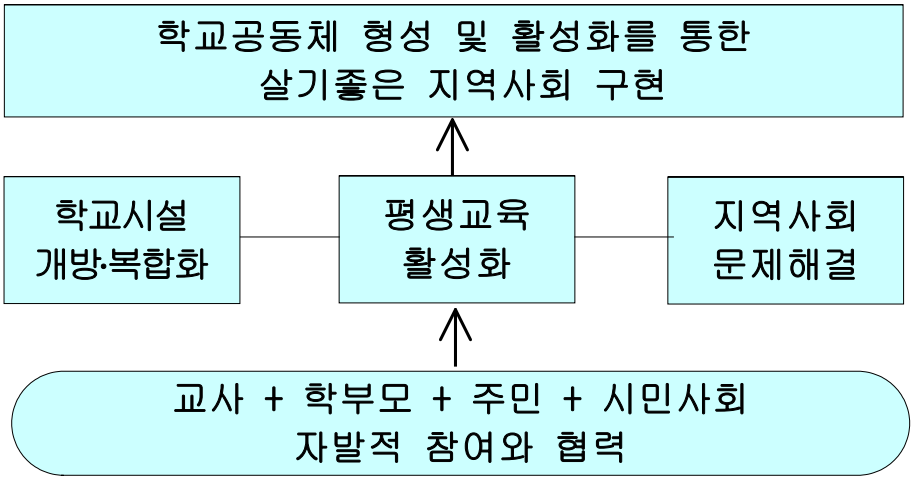
①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

② 평생교육의 활성화

③ 지역사회문제 해결

3) 추진체계 : 교사, 학부모, 지역주민, NGO 등 관련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네트워킹 강화

<학교공동체의 비전과 과제>



4) 과제

①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 촉진

□ 필요성

○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원활한 교류 및 소통과 이에 기초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인프라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,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시설을 복합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□ 주요사업

○ 학교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을 위해 운동장과 도서실 개방, 담장 허물기, 학교 숲 조성, 학교공원화사업 등을 추진

○ 학교시설 복합화에는 체육관, 도서관, 공연장, 평생학습 강의실, 유치원, 주차장, 공원시설 등을 집적시키거나 인접한 지역의 관련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함

※ 최근 민간자본유치제도인 BTL방식을 통해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을 추진중임. 교육인적자원부는 신도림고, 고척고 등 서울 및 부산, 천안 소재의 8개 학교를 복합시설 시범학교로 선정하여('06.4.18) 도서관, 생활체육시설, 보육시설의 설치를 진행 중이며, 2007년에는「BTL 학교시설 복합화」사업을 추진중

□ 주요사례

○ **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공동체: 충남 연기 명동초등학교**

- 연기교육청(일반교실과 특별교실 운영)과 국민체육진흥공단(수영장, 체력단련실, 체력측정실 등 설치)이 공동으로 복합화사업 추진

※ 복합화 시설의 소유 및 운영은 연기교육청이 담당

- 하루 이용객이 400명 수준으로, 지역사회 내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위상정립, 지역주민에게 문화체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공헌

○ **학교시설 복합화의 모범사례: 서울 금호초등학교**

- 학교시설에서 수영장, 소극장, 도서관을 갖춘 문화시설을 복합화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모범적으로 운영
- 실내체육관 문화센터 등 각종 문화시설은 방과 후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,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
- 운동장 지하에 건설된 주차장은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

○ **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**

-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(국민체육진흥공단)의 지원으로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생활체육수요 증가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여건개선을 위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추진
- 흙먼지 날리는 학교운동장을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

※ 2010년까지 총 1,772억원을 지원하여 443개교에 조성을 추진

□ **정책과제**

○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와 관련하여 학교, 지자체 등 관련주체의 이해부족, 시설훼손 및 교육환경 저하 등 우려, 복합시설 유지·관리 지원체제 미비 등의 해소 필요

○ 정책과제

-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에 대한 인식제고 및 성공모델 확산
- 학교시설 개방과 연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축제 및 이벤트 개최 (예: 둔촌초등학교 목련축제 등)
-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교시설계획, 지역주민의 편의시설계획 수립 시 공동계획 및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연계·협력
- 각종 사고 및 안전문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(평생교육법,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등)
- 시설복합화 및 개방에 대한 유지·관리 재원 확보(시설사용의 유료화 등) 및 전담인력 충원

② 평생교육의 활성화

□ 필요성

○ 평생교육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토대가 되며, 지역주민 간 상호교류와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,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

□ 주요사업

○ 초중등 학교의 취미, 교양, 언어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, 농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추진 확대

※ 방과후 학교사업은 '06.10월 현재 학교참여율 98.7%, 학생 참여율 41.9%, 총 프로그램 수 150,308개로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에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소득계층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

○ 대학평생교육원의 일반교양, 기술교육 및 자격증 취득, 학점은행제, 지역사회봉사 등 프로그램 운영

○ 시민단체, 문화센터, 백화점 등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취미, 교양강좌 등 운영

□ 주요사례

○ **지역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: 경기도 고양 화수고등학교**

- 지역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한식, 일식, 양식 등 자격증 취득 및 취업·부업·창업지도를 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실현

※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아 제1회 전국평생교육대상에서 교육기관 부분의 특별상을 수상(2004)

○ **기업이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: 전남 여수 여도초등학교**

-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 내 19개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1981년 개교
- 방과후학교로 수요자 중심의 음악, 미술, 과학, 수학, 스포츠, 어학, 컴퓨터, 바둑, 문예 등 19개 분야에 81개 반을 운영

-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설문조사를 통해 강좌를 신설 및 폐지하며, 수강료는 일반 학원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

※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단은 세계박람회 홍보사절로 유럽5개국 공연 등 3차례 해외 순회공연에 나설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, 60명의 국악관현악단과 20명의 리코더앙상블반, 40명의 동요사랑반 등은 학교와 여수시민회관 등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

○ **전라남도 교육청의 대학 연계 협력 및 대학생 멘토링**

- 중소도시에 맞는 대학지원형 방과후학교 운영 모형 개발

※ 순천풍덕중은 순천대학 및 순천청암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, 교수가 찾아오는 프로그램과 학생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설

- 저소득층 학생의 문화체험과 기초학습 보충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운영

※ 순천과 곡성지역에서 멘토(mentor) 167명과 멘티(mentee) 312명 참가

- 대학생 강사를 활용한 여름학교, 겨울학교 운영

※ 대학생 224명이 희망하는 학생 13,536명을 대상으로 60시간씩 운영(2005)

□ **정책과제**

○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및 자원의 활용률 제고,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양화, 유사기능의 차별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

○ 정책과제

-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기술·취미·교양·외국어 등 지역별·계층별 단기 및 장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
- 자격증 취득, 부업 및 취업 등 동기유발을 통해 평생교육의 참여도 및 실효성 강화
- 교사, 대학생, 민간전문가 등 자원봉사자 인력풀의 확보 및 활용
- 기관별로 진행되는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연계운영,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, 필요시 지역단위의 '평생교육협의체' 구성 검토

- 평생교육 관련 대학평가체계의 개편을 통해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 강화

- 비영리 외부 단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확대, 보충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는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 등 지원체제 구축

③ 지역사회문제 해결

□ 필요성

○ 학교를 매개로하여 교사, 지역주민, NGO 등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

□ 주요사업

○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학생선도, 장학사업, 교통안전지도, 유해환경 개선, 노인문제 해소, 환경오염문제 개선, 음악회 개최 등 문화운동에 등 다양한 사업추진

□ 주요사례

○ 울산 온양 소도읍 토요학교 운영을 통한 소외가정 치유

- 온산공단 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방치·소외되고 주5일제에 따른 토요휴무일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문화·학습활동의 부재로 가족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

- 온양읍 내 학교·관공서·종교단체·사회복지기관·기업체가 "온양 소도읍 토요학교협의회"를 구성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마술, 요리, 원어민 영어 교실 등 특기와 취미를 살리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동체 복원을 도모

※ 지역내 초·중등학교(3개), 종교단체(4개), 사회복지기관(2개), 기업체(4개)가 동참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교육청 교부금과 소도읍육성사업 지원금, 기업체 기부금 등을 활용

○ 청소년 선도 지역자율봉사대 운영

- 부산 하단중학교와 하단동사무소, 하단2동 청년회 등 7개 기관

및 단체가 협력하여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로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인성교육을 함양

- 하단동장과 하단지구대의 긴밀한 협조로 등하교 안전지도 및 하단중학교 주변 야간 방범활동 강화 및 인근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여 유해환경과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보호

○ **홍사단의 초등학교 주변 불법 도박성 게임 철거계도**

- 홍사단을 중심으로 학교 앞에 설치된 불법 도박성 게임기의 실태를 조사하고, 방송과 신문을 통해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
-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캠페인을 통해 불법 게임기 추방 계도활동을 전개하고,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교육청의 단속을 촉구하고,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

□ **정책과제**

○ 청소년 문제, 학교주변 경관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위해 교사, 학부모,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여건조성과 인식 변화유도

○ 정책과제

-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,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조성
-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문제 사안별로 교사, 학부모, 지역주민, NGO, 지자체 등 파트너십 구축
- 지역기업체의 사회기여 차원에서 참여의 적극 유도
- 학부모회 활성화 및 지역사회교육전문가(평생교육사, 사회복지사 등)를 적극 활용
- 학교 기능의 확대에 대한 교사, 학부모, 지역주민에 대한 의식교육 확대 및 '초중등교육법' 등 관련제도에 반영 검토
- 지역문제 해소와 관련한 기업체 등 민간 기부금 확충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

2. 복지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

1) 목표 : 함께 어울려 살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형성과 살기좋은 지역사회 구현

2) 3대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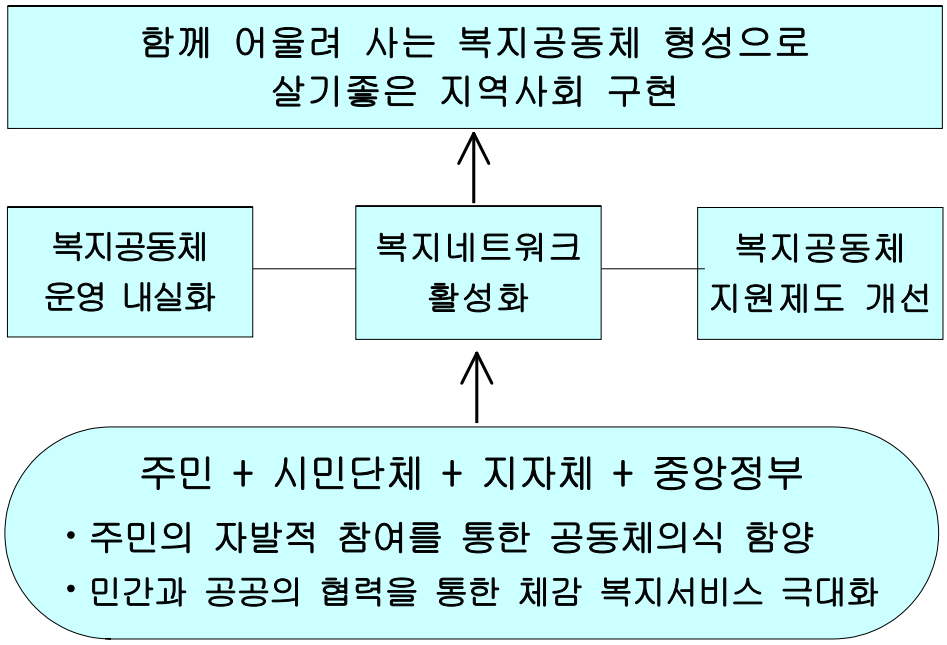
① 복지공동체 운영내실화

② 복지네트워크 활성화

③ 복지공동체 지원제도 개선

3) 추진체계

<복지공동체의 비전과 과제>



4) 과제

① 지역복지공동체 운영 내실화

□ **필요성**

○ 지역복지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복지관련 전문가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의료, 건강 등 분야별 복지공동체 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 필요

□ 주요사례

○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강의료공동체: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

- 1994년 4월 경기도 안성지역주민과 지역의 의료전문가들이 주민 건강,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창립

-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, 주민건강을 지키는 자발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발전

- 보건예방활동으로는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1차 예방사업으로 보건학교, 건강마을 만들기, 보건교육, 건강한 생활습관 보급사업을 진행

-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하기 위한 2, 3차 예방활동으로 조합원 건강검진, 만성질환자관리, 가정방문간호, 왕진, 한방, 상담활동을 진행

※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료보건복지공동체로써 대전, 전주 등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

○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은행

- 2002년 12월 밥상공동체 대표 허기복 목사에 의해 원주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영세민가정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지역복지공동체 "연탄은행" 설립

- 연탄은행 사업은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발전하여 현재 춘천, 공주 등 20개 지역에서 운영 중

-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자원봉사자의 확대, 후원자 및 서비스대상자 발굴, 참여자 조직강화,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복지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

○ 아파트공동체의 모델: 울산 굴화두레마을

- 굴화주공1단지를 중심으로 굴화두레마을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체문화운동, 전통문화 계승, 숲으로 대표되는 친환경녹색주거공간을 조성

- 참여자치연대, 경실련 및 참교육학부모회와 공동으로 법률강좌, 학교운영위원회 강좌 등을 실시하고, 실직 가정의 자녀를 위한 공부방 운영, 경로행사, 연말 불우이웃돕기 팥죽 판매행사, 단지내 불우이웃 돕기 모금, 농산물 직판 등을 실시

□ 정책과제

○ 자발적인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

○ 자생적 복지공동체 활동 및 리더십 강화

○ 복지공동체 분야 전문가 확보

○ 지역주민교육 활성화

○ 지속적인 공동체 노력 홍보

○ 공동체 참여조직 내실화

○ 공동체 참여자 관리 및 피드백 기능강화

② 복지네트워크 활성화

□ 필요성

○ 복지기관과 지역복지단체와의 역할정립 및 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의 양적, 질적 수준 향상

□ 주요사례

○ 전주시지역복지협의체

- 2005. 7월 전주지역 복지, 여성, 문화, 실업, 아동, 청소년 봉사 등의 복지서비스분야 인사들을 중심으로, 서비스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

- 실업자지원센터, 자활후견기관, 이주노동자센터, 여성노조 등 6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

- 서비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(이용시설, 생활시설, 재가복지로 구분)를 구성하고 단체별 서비스 내용을 공유·실행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주민복지서비스를 활성화

○ 대구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

- 총 14개 사회복지단체(YWCA, 대구남구사회복지관 등)가 참여하는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, 각 단체별 간사단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아동복지를 위한 공부방 정보 및 사례 공유와 노인복지분야의 연계사업을 실시

- 남구지역 재가노인복지 관련기관을 조직화하여 재가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, 각종 모임을 통해 협의체연합사업 공모, 중복 및 누락 서비스대상자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

□ 정책과제

○ 지역주민협의체 등 민간 네트워크의 구축

○ 민-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(민관 협의체 구성)

○ 지역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

○ 복지사업기관과 복지운동기관 사이에 '지역사회복지의 발전' 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한 상호 이해와 협력도모

○ 지역사회 내에 민간시설 및 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

○ 지방정부와 민간영역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

③ 복지공동체 지원제도 개선

□ 필요성

○ 민간의 부족한 자체재원이나 인력수급에 의한 지역복지문제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공감대 형성과 의식전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공동체 지원 제도신설 및 보완 필요

□ 주요사례

○ **행정자치부 "지역공동체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" 지원**

-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의 적극 추진

- 자원봉사활동기본법('05.8) 및 시행령('06.2) 제정 등 자원봉사활동의 법적·제도적 추진기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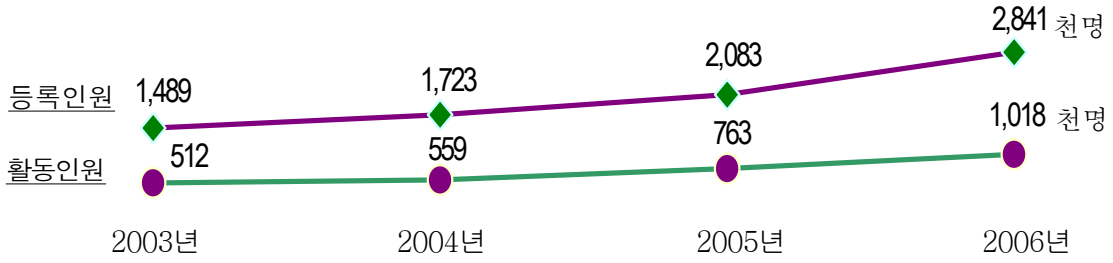
※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주요내용

·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
·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
· 자원봉사활동시 발생할 위험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
·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에 국공유재산 무상대여 등 지원방안 제시

-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법적·제도적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강화되어 자발적 복지공동체 활성화에 기여

※ 관련예산지원

· 상해보험료('06, '07년 각 16억원) 및 코디네이터('07년 17억원) 지원 등



< 자원봉사 활동인원 증가 추이 >

□ 정책과제

○ 복지공동체 관련 공공시설의 개방범위 확대

○ 복지공동체 네트워크화 유도 및 지원

○ 지역주민, 공동체 리더 등 교육활성화 지원

○ 공동체관련 내용의 교육과정화(초등교육 등)

○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지자체 조례 설치 독려

Ⅳ. 향후 추진과제

□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지속적인 경제·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보,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

○ 방과후학교 사업은 사교육비 경감 등 사회문제 해결관점에서 지원 확대

○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공동체의 역량강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

□ 민간의 주도적 사업 추진과 각 공동체간 협력 강화

○ 지역주도, 주민참여 등 민간이 활동을 선도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원역할

○ 학교공동체, 복지공동체, 각 민간단체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으로 복지서비스 극대화

□ 부처간 관련정책 연계 강화 및 2단계 균형발전정책으로 구체화

○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정책연계 강화 필요

- 교육인적자원부, 행정자치부, 보건복지부 등

○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"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"과제로 구체화

- 지방 초중등교육의 수월성 제고
  · 지역 초·중학교를「지역복지 거점학교」로 육성,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 확대 등
-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  · 주민건강정보 DB화, 정기 방문검진 및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역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,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을 1차, 2차「지역의료건강센터」로 기능 강화 및 연계 육성
- 지역선도도시의 교육·문화·의료·복지 인프라 확충
  · 혁신·기업도시에 학생·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 설립, 문화·예술관련 국립시설의 집중 배치, 도시규모에 적합한 국공립 노인요양시설·보육시설 등을 우선 설치